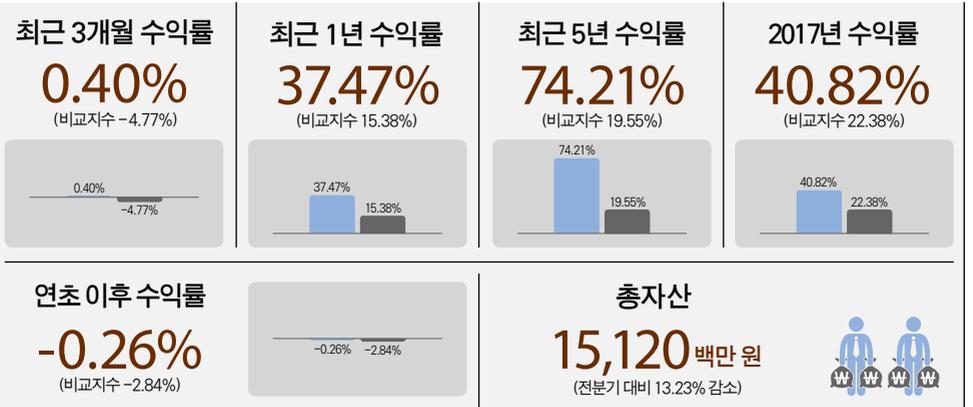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장기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 자금 마련 및 재산 형성을 위한 비교세 상품입니다.
★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실천합니다.
★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업의 내재 가치에만 주목하여 장기 투자합니다.
★ 리스크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지향합니다(Low Risk Middle Return).

최초 설정일 | 2008.05.16 | 운용 기간 | 2017.11.16~2018.02.15



위 수익률은 가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부터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위험 등급은 새롭게 적용하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3년 수익률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위험 등급

1이 펀드는 최근 결산일(2017년 5월 15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하여 환산 표준편차가 12.97%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 등급 체계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펀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실제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다소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급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측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수익률 표준편차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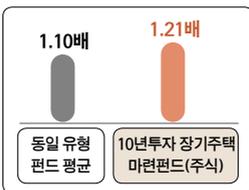
3이 투자 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펀드에 가입하기 전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 위험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BR과 PER도 확인하세요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는 장기 가치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 부담 없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펀드 PBR과 PE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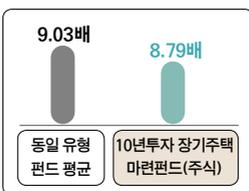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란?

PBR(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기업 순자산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B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PER(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이익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E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ER이 낮을수록 수익은 많이 올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BR 주가/회계연도 말 예상 순자산
※ PER 주가/12개월 예상 수익
※ 출처 FN스펙트럼(최근 12개월간 월말 평균 / 2017.01~2017.12)
※ 동일유형펀드 액티브주식일반공모펀드(적극적 운용을 통해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Vol.39
2017.11.16~
2018.02.15

한 걸음 떨어져 멀리 바라보기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멀어지는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산등성이처럼 시장 상황은 기대와 우려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쉽 없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냉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가치가 커가는 소중한 기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가치투자 대표운용사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최찬규 펀드매니저가 전하는 펀드의 3개월

글로벌 경기와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 관점 유지하며
KOSDAQ 중소형주 비중 늘릴 것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른아홉 번째 보고서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운용 기간 동안 10년투자 장기주택 마련펀드(주식)는 0.40%의 수익률을 기록해 비교지수 수익률을 5.17%p 초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긴축 우려로 급격한 조정 맞은 주식시장

작년부터 계속 글로벌 경기와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KOSPI와 KOSDAQ은 1월까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했습니다.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 역시 증시의 상승과 더불어 주식 편입비를 높게 유지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직전 분기부터는 KOSDAQ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새로 편입한 중소형주 또한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말까지 꾸준히 오르던 증시는 2월 들어 급격한 조정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미국의 빠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 결과 2주 만에 고점보다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외국인 위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증시 고점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급격한 긴축은 없을 것

미국 금리가 오름세로 접어든 것은 확실하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물가 상승, 임금 상승, 경제성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경기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긴축이 나타나



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다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과 긴축이 우려할 만한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에 근거가 되는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기본 입장이어서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급격한 금리 상승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 성장 전망도 밝고 물가와 임금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려는 것이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데도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절대적 금리 수준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던 때보다는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것은 맞지만, 이번 급락의 원인인 급격한 긴축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 금리 상승 초입에는 주식의 시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는 금리 상승 초입에 가장 매력적인 투자 자산은 주식입니다. 물론 지금이 금리 상승 완전 초입인 국면은 아니지만, 물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임금도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경제 상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며 금리를 역전하기 시작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기대 수익률을 보여주는 자산에 대한 요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이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KOSDAQ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지속

경기 회복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경기 민감주와 좋은 업황에서 독점

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IT 산업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중소형 개별 종목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KOSDAQ 활성화 정책이 점점 가닥을 잡으면서 이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저평가 중소형주를 잘 찾아낸다면 올해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떨어진 기업 중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업황 회복으로 턴어라운드를 이루려는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는 더 많은 탐방과 리서치를 통해 정말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항상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고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2월의 급격한 조정으로 KOSPI는 연초 대비 오히려 떨어지고 KOSDAQ만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증시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더 많이 생기는 법이라, 이번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으로 주식 편입비를 계속 높게 가져가볼 생각입니다. IT 산업은 최근 주가 고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부진한 상황이나, 장기적인 수요 증가와 제한적 공급 상황을 감안할 때 이익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다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주가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고, 리스크를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지켜나감으로써 투자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펀드매니저 최찬규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는 이런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재산을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가 자산을 취득, 처분하게 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펀드 재산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주식형)**입니다.
- 기존에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입니다.
-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다른 판매 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투자자가 원하는 때에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입니다.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 판매회사입니다

은행 | KB국민은행

증권 |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 기본 정보

적용 법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펀드명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83240
클래스 A	83152
클래스 C	83153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	KB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티스

- **공시 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인 'KB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www.koreavalueasset.com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표로 보는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

재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	금분기 말	증감률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자산 총액	17,426	15,120	-13.23
	부채 총액	395	444	12.28
	순자산 총액	17,030	14,676	-13.82
	기준 가격	1,207.90	1,212.72	0.40
종류(class)별 기준 가격 현황				
클래스 A	기준 가격	1,197.43	1,197.81	0.03
클래스 C	기준 가격	1,188.08	1,187.54	-0.05

• 기준 가격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 포함) 수령 시에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펀드 순자산 총액÷수익증권 총좌수)×1000

기간 수익률

(단위: %, %p)

펀드명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017.11.16~2018.02.15	2017.08.16~2018.02.15	2017.05.16~2018.02.15	2017.02.16~2018.02.15	2016.02.16~2018.02.15	2015.02.16~2018.02.15	2013.02.16~2018.02.15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0.40	13.34	21.27	37.47	62.18	38.26	74.21
(비교지수 대비 성과)	(5.17)	(10.44)	(16.44)	(22.09)	(28.31)	(14.42)	(54.66)
비교지수	-4.77	2.90	4.83	15.38	33.87	23.84	19.55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0.03	12.53	19.98	35.54	57.62	32.40	62.05
(비교지수 대비 성과)	(4.80)	(9.63)	(15.15)	(20.16)	(23.75)	(8.56)	(42.50)
비교지수	-4.77	2.90	4.83	15.38	33.87	23.84	19.55
클래스 C	-0.05	12.36	19.70	35.14	56.66	31.17	59.49
(비교지수 대비 성과)	(4.72)	(9.46)	(14.87)	(19.76)	(22.79)	(7.33)	(39.94)
비교지수	-4.77	2.90	4.83	15.38	33.87	23.84	19.55

• 비교지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는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비교지수((KOSPI200×90%)+(CD금리×10%))를 사용했습니다.
 • 위 수익률은 거저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수익률은 과거의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Comment! 최근 3개월 수익률 0.40%로 비교지수 수익률보다 높아

직전 분기까지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바이오·제약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그동안의 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이 시장을 지배해 주식시장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시장은 실제로 이익이 상승하고 가치가 성장하는 종목만 오르는 차별화 장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는 기대감이 아닌 냉정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가치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손익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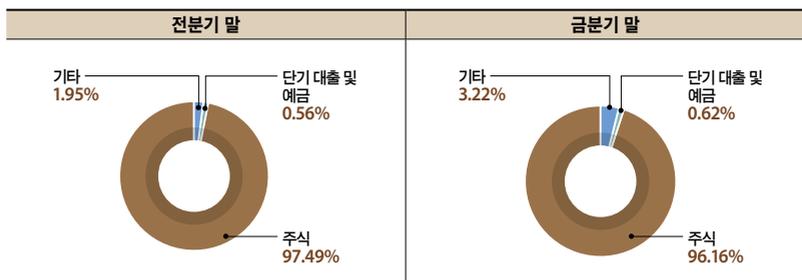
구분	주식	집합투자증권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전분기	2,003	-	0	0	2,003
금분기	-223	264	0	0	41

자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주식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KRW	14,540	93	487	15,120
	(96.16)	(0.62)	(3.22)	(100.00)

• () 안의 숫자는 구성 비율로, 총자산 중에서 각각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요 자산 보유 현황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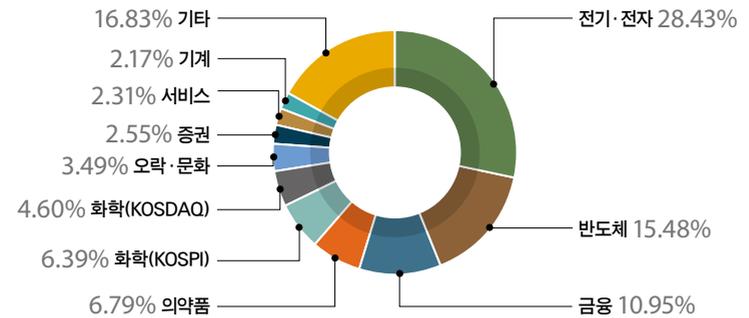
(단위: 주, 백만 원, %)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비중
삼성전자	954	2,337	15.45
SK하이닉스	14,245	1,105	7.31
동진세미켐	45,140	815	5.38
셀트리온	2,435	761	5.03
삼성전자우	303	617	4.08
솔브레인	8,635	526	3.47
에스케이 머티리얼즈	2,397	425	2.80
KB금융지주(주)	5,706	370	2.44
현대로보틱스	851	339	2.24
SK	1,115	324	2.14

• 비중 (평가액÷총자산)×100
 • 펀드 자산(주식, 채권, 기타 자산 포함) 총액에서 상위 10개 종목, 자산 총액의 5% 초과 보유 종목 및 발행 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보유 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 대상 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의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투자 비중

• 이 그래프는 기준일 현재 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업종별 비중을 나타냅니다.



Comment! 전기·전자업, 반도체업 비중은 줄고 금융업, 화학업 비중은 늘어

이번 분기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의 업종별 투자 비중을 직전 분기와 비교해보면 전기·전자업과 반도체업 비중은 낮아지고, 금융업과 화학업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전기·전자업은 직전 분기 28.99%에서 이번 분기 28.43%로 소폭 하락했고, 반도체업 역시 18.45%에서 15.48%로 하락했습니다. 금융업은 10.59%에서 10.95%로, 화학업은 4.74%에서 6.39%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주식 보유 비중 상위 종목에는 셀트리온, 현대로보틱스, SK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		금분기 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자산운용회사	30.97	0.19	29.04	0.19	
	판매회사	클래스 A	8.31	0.17	7.85	0.17
		클래스 C	28.83	0.25	26.96	0.25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	1.24	0.01	1.16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58	0.00	0.54	0.00	
	보수 합계	69.93	0.62	65.55	0.62	
	기타 비용	0.09	0.00	0.08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 매매 중개 수수료	4.47	0.03	11.87	0.08
		조사 분석 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10.43	0.06	17.36	0.11
		합계	14.90	0.09	29.23	0.19
	증권거래세	23.87	0.15	39.26	0.26	

• 비율 펀드의 순자산 총액(기간 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 비용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성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 환산, %)

펀드명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	중개 수수료 비율	합계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전분기	-	0.36	0.36
	금분기	-	0.75	0.75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전분기	1.47	-	1.47
	금분기	1.47	-	1.47
클래스 C	전분기	1.79	-	1.79
	금분기	1.79	-	1.79

• 총보수비용 비율(Total Expense Ratio) 운용 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 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 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매매 주식 규모 및 회전율

(단위: 주, 백만 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 기간	연 환산
434,639	10,913	488,138	13,088	86.91	344.80

• 매매회전율 주식 매매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 가격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2017.02.16~2017.05.15	48.30
2017.05.16~2017.08.15	76.81
2017.08.16~2017.11.15	48.60

Comment! 이번 분기 매매회전율 86.91%로 직전 분기보다 높아

이번 분기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주식)의 매매회전율은 86.91%로 직전 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식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 모두 직전 분기보다 늘어났는데, 특히 주식 매도 금액 상승 폭이 크면서 매매회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종목 중심으로 매도하고, 저평가된 우량 중소형주를 새로 편입하거나 비중을 높여가면서 새로운 시장 흐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업 투자 전략과 가치투자

주식 투자 전략 중 하나인 보통업 투자 전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치투자자와 보통업 투자 전략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틈다운 투자 전략과 보통업 투자 전략

주식 투자 전략은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뜻의 틈다운(top-down) 투자 전략이고, 둘째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본다는 뜻의 보통업(bottom-up) 투자 전략입니다. 틈다운 투자 전략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각종 거시 경제 지표부터 분석한 다음 이것이 끼칠 영향을 개별 산업과 개별 기업으로 내려가며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통업 투자 전략은 개별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즉 개별 기업에서 시작해 그 실제 가치를 분석한 후 투자 기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하거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혼용해서 투자하기도 하는데 정답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저 가장 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보통업 투자 전략과 가치투자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는 이 중 보통업 투자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 템플턴이나 워런 버핏 같은 가치투자의 대가들 역시 보통업 투자 전략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여왔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할 때 우리는 자신을 기업 분석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분석가로도, 거시 경제 분석가로도, 심지어 증권 분석가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워런 버핏 <주식 말고 기업을 사라> 중 가치투자의 대가들이 보통업 투자 전략을 신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각종 거시 경제 지표가 반영된 ‘미스터 마켓(Mr. Market)’은 변동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일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설픈 틈다운 방식의 분석보다는 확실한 개별 기업 분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 분석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을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수익을 쌓아나가면 장기적으로 볼 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보통업 투자 전략에서 인내심은 필수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보통업 투자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의 수혜를 입고 크게 성장할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장성’이 부각될 때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개별 기업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줄어든 단계에 들어서면 꾸준히 성장하는 개별 기업으로 시장의 시선이 다변화되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보통업 투자 전략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 받는 기업을 발로 뛰어 제대로 찾아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높은 수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오리고 붙이고 모아두재 뉴스스크랩북

2018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는?

2018년부터 금융 제도와 법규가 많이 달라집니다. 투자자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04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폭 축소

연 35%까지 올릴 수 있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폭이 25%로 줄었습니다(2017년 12월 20일부터 적용). 또 2018년 4월 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팔 때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 넣는 관행이 금지되어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05

클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2018년 1월 1일부터 클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소득공제율도 전반적으로 높였습니다.

06

서민형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가입) ISA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농어민형의 경우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높아졌지만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종전에는 퇴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의무 가입 기간(일반형 5년, 서민형 3년) 내에 인출할 경우 혜택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했습니다.

01

신DTI 도입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계산 방법을 개선해 ‘상환할 능력만큼만 대출받는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신DTI’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신DTI에서는 새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는 이전 DTI보다 대출 조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02

법정 최고 금리 24%로 인하

2월 8일부터 대부업자, 여신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법정 최고 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3.9%p 내린 연 24%로 낮아집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돈거래(10만 원 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연 24%의 법정 최고 금리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법정 최고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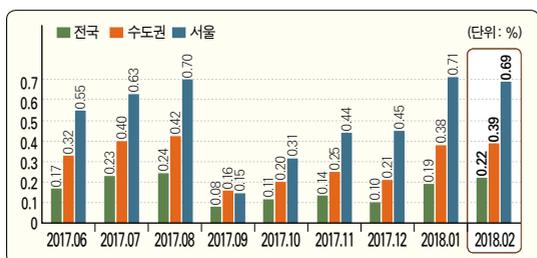
03

보험금 통합 조회 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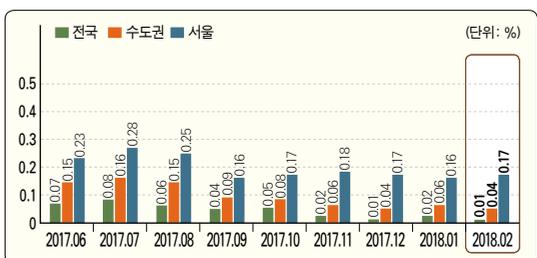
2017년 10월 기준으로 주인이 찾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무려 7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험 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서비스가 2017년 12월 18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ZOOM)’ 홈페이지(cont.insure.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의 잔액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주택시장>
매매 가격 상승 폭은 확대, 전세 가격 상승 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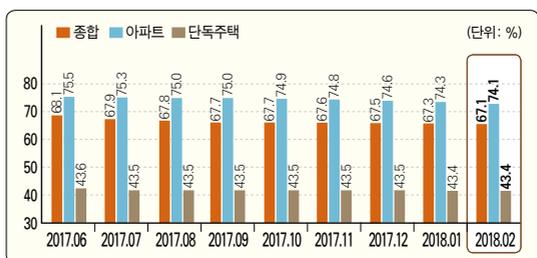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주택 전세 가격 변동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 자료 KB국민은행